

민주연구원, 『슬기로운 지방선거』 5호 “‘협오의 정치’ 매듭짓기” 발간

- ‘갈라치기’ 대신 ‘팩트’로 무장… ‘협오의 정치’ 끝내고 실용적 통합의 길 제시

4월 1일(수),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성공적인 대비를 위해 기획된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필승 정책브리핑 특별호 『슬기로운 지방선거』 “⑤ ‘협오의 정치’ 매듭짓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국민의힘 협오 정치의 역사’다. 보고서는 1980년 신군부의 호남 협오부터 최근 이준석-윤석열 체제의 ‘젠더·이주민·장애인 갈라치기 3종 세트’까지, 보수 정당이 선동과 가짜뉴스를 통해 공동체를 분열시켜 온 과정을 연표로 정리하며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둘째, ‘이주민 투표권과 부동산에 대한 팩트체크’이다. 이주민 투표권은 2005년 여야 합의로 도입된 ‘민주주의 확대’의 산물임을 밝혔다. 또한, 부동산 보유는 ‘국적’이 아니라 ‘투기’ 여부가 문제임을 명확히 하며, 토지보유의 경우 미국 국적자가 53.5%로 가장 많다는 팩트를 지적했다.

셋째, ‘외국인 건강보험의 실체’다. 본 보고서는 외국인 건강보험이 2024년 단독으로 9,439억 원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는 실질적으로 한국 3D 노동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통계에 포착되지 않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있는 건강보험 ‘고부담-저수혜’구조가 있음을 지적

했다.

넷째, 외국인 정책 전반의 방향을 '단속 중심에서 질서 있는 관리'로의 전환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됨을 해외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과도한 통제와 단속은 오히려 음성적 노동과 치안 불안을 야기하는 '부메랑 효과'를 가져오며, 과거 미국과 이탈리아의 사례를 바탕으로 관리를 통한 예방 중심의 통합 이민 관리 체계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섯째, '조선업 이주노동자 문제의 본질'이다. 보고서는 하청 구조 개선 없이 저가 노동력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이 국내 노동조건까지 하향평준화시킬 수 있음을 우려했다. 과거 미국과 캐나다의 유사한 사례를 명시하며 '위험에 대한 값싼 외주화' 대신, 산업 구조의 개선을 우선시하여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민주연구원은 앞서 발간된 1~4호 브리핑에 이어, 이번 5호 '혐오의 정치 매듭짓기'를 통해 지방선거 현장에서 근거 없는 혐오 선동에 맞서고 국민 통합과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한 정책 선거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본 보고서에 이어 『슬기로운 지방선거』의 마지막 편인 제6호 "지방선거, 여기부터 시작하자"가 발간될 예정이다.

[참고]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필승 정책프리핑 특별호 『슬기로운 지방선거』 브리핑 전체 발간 일정

- | | |
|------------------------------|---------------------------|
| ① 2026 지방선거, 왜 중요한가 (3.23.월) | ② 지방선거를 결정짓는 숫자들 (3.25.수) |
| ③ 대한민국을 바꾸는 행정통합 (3.27.금) | ④ 부동산, 마침표를 찍는가 (3.30. 월) |
| ⑤ '혐오의 정치' 매듭짓기 (4.1.수) | ⑥ 지방선거, 여기부터 시작하자 (4.3.금) |